



잃어버린 문화유산을 찾아서

강소연 지음  
부엔리브로 펴냄 | 2만5700원

“이 유물이 어쩌다 예 까지 왔을까?”

불화(佛畵)에는 많은 메시지가 담겨 있다. 영산회상도, 감로탱, 시왕도, 각종변상도, 벽화, 나한도 등 종류도 다양하다. 불화에 담긴 신앙적 의미는 교리와 의식을 포함한 포괄적인 메시지로 표출되어 있다. 그래서 안목을 갖춘 사람이야말로 도상에 드러난 혹은 숨겨진 의미를 제대로 읽을 수 있다. 평범한 불자라면 아무 리 들여다보아도 등장인물

이 어떤 분들인지도 모르고 그림의 내용이 어떤 장면인지도 모르기 일쑤다. 자세한 설명을 듣거나 책을 통해 공부할 해야 불화의 세계를 이해 할 수 있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불화를 이해하기엔 적합한 책이 그리 많지 않다. 법당에서 불화를 보면서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는 기회는 더욱 흔하지 않다. 무엇보다 고려시대나 조선 전기 이전의 불화는 실물을 볼 수 있는 기회조차 잡기 어려운

않다. 현재 국내에 전하는 조선 전기 이전의 불화는 10점 미만이다. 반면 일본이나 미국에 흩어진 조선 전기 이전의 불화는 250여점에 달한다. 이처럼은 일이지만 우리의 현실이다. <잃어버린 문화유산을 찾아서>는 조선 전기 이전의 우리 불화가운데 미국이나 일본의 박물관과 미술관 혹은 사찰이나 갤러리에 소장된 작품들을 소개하고 있다. 단순한 작품 해설이 아니라 불화 속에 담긴 신앙적 의미와 도상에 드러나거나 숨겨진 의미들을

납뽀이 풀이해 주고 있다. 저자 강소연 교수(홍익대 겸임)는 <잃어버린 문화유산을 찾아서>에서 불화의 세계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난해한 용어를 이해하기 쉬운 생활 언어로 대체했다. 또 예시를 덧붙여 읽어 나갈 수 있도록 미려하고 감성적인 문장으로 불화가 고상하면서도 불화가 결코 ‘난해함’으로 인식을 시키지 않게 설명하고 있다. 강 교수 자신도 “현장에서 보는 작품의 생생한 아름다움을 읽는 이에게 전달하고자 최선을 다했다”고 밝힌다. 고향이 아닌 이국 땅에서 고향의 역사를 간직한 채

새로운 시간에 묻혀가는 우리의 옛 불화들을 찾아다니는 동안 강 교수는 “이 유물은 어쩌다 예 까지 왔을까?” 하는 안타까움과 자괴감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그 안타까움보다는 우리의 옛 불화를 만나는 순간마다 어김없이 한눈에 바로 알아 볼 수 있었다. 그런 감회를 깊어지고 작품 조사에 착수했던 강 교수는 종교교화로서의 불화가 아니라 우리 민족의 역사를 응화하고 있는 ‘명작(名作)’으로 불화를 만났다고 밝히고 있다. 그래서 불화를 신앙적인 측면에서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인간 삶의 보편적인 의미상에서 읽으려는 노력이

들어난다. <잃어버린 문화유산을 찾아서>는 2006년부터 2년간 현대불교에 ‘불화 속의 명작’이란 타이틀로 연재했던 내용을 보완하고 정리한 것이다. 강 교수는 고려대학교 영국의 런던대학, 서울대학교에서 미술사학과 고고미술사학을 공부했으며 일본 교토대학에서 동양미술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2005년에는 일본 미술문화계 최고권위 학술상인 ‘국화상’을 수상했고 지난해는 ‘불교소장 학자 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 임연태 기자



왜 나무아미타불인가

이기화 옮김  
불광출판사 펴냄 | 1만2000원

아미타부처님은 무량광(無量光)과 무량수(無量壽)의 부처님이다. 한량없는 광명은 일체중생을 제도하는 대자비와 지혜의 빛이다. 한량없는 생명은 아미타 부처님의 수명이 끝이 없고 그 국토(극락세계) 백성들의 수명이 한량 없음을 뜻한다. 그렇다면 유한의 세상에서 번뇌와 집착으로 고통을 벗지 못하는 중생은 무량광 무량수의 가피를 받을 수 없는가? 정토신앙은 어떤 중생이건 극락세계에 갈 수 있다는 확신에서 출발한다. 반드시 극락에 갈 수 있다는 믿음(信), 반드시 극락에 가겠다는 발원(願), 그리고 극락에 가기 위해 지금 실천하는 수행(行)이 정토 신앙의 근본이다. 극락국토를 건설하고 그 아름답고 영원한 나라로 모든 중생들을

정토신앙 이해하는데 친절할 길잡이

이길 것을 서원했던 법장비구가 아미타 부처님이 되는 과정은 어떠한가? 중생이 극락국토로 왕생하기 위해 어떤 믿음과 발원과 수행을 해야 하는가? <아미타경>은 바로 정토신앙의 근원이 되는 이 두 물음에 대해 간결하면서도 상세하고 아름답게 답하고 있다. 아미타부처님의 출현과 극락세계의 장엄한 모습, 중생들이 극락세계에 이르기 위해 뒤야 할 수행이 부처님의 설법으로 펼쳐져 있는 정토신앙의 핵심 경전이 <아미타경>인 것이다. “만약 착한 남자와 여자들이 아미타불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하루 이를 혹은 사흘 나흘 다섯 열흘 혹은 이레 동안, 한결같이 아미타불 이름을 불러 한마음이 되어 흠여지지 아니하면, 그들이 임종할 때 아미타불께서 여러 성인들과 함께 그들 앞에 나타나신다. 그래서 그들은 목숨을 마칠 때 마음이 뒤바뀌지 않고 곧 아미타불의 극락세계에 왕생한다. 나는 이러한 이익을 보았기 때문에 이 말을 한다. 중생들이 이 말을 들으면 마땅히 그 국토에 태어 나도록 발원해야 한다.” 중국 명나라 때의 고승 우의 스님은 이 <아미타경>을 불교의 모

든 궁극적인 가르침과 중생이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가 제시된 경전이라고 보았다. 우의 스님은 <아미타경요해>를 저술해 자신의 정토신앙에 대한 해박하고 견고한 지식과 의지를 드러냈다. “<화엄경>의 심오한 법장과 <법화경>의 비밀한 끝수와 모든 부처님의 심오와 보살만행의 지남(指南)이 모두 <아미타경>에 있다”고 했을 정도다. 과연 우의 스님의 <아미타경요해>는 <아미타경>을 통해 정토신앙을 이해하고 수행의 지침으로 삼는 ‘명약(名藥)’으로 손색이 없었다. 그 약효는 시대를 초월하는 것이어서 근대 중국 정토종의 큰 스승인 인광 대사도 “우의 대사의 <아미타경요해>는 사리와 이치가 지극하고 미묘하고 또 정확해서 옛 부처님들이 다시 태어난 다 해도 이를 능가할 주석을 달 수 없을 것”이라고 극찬했다. “왜 나무아미타불인가”는 우의 대사의 <아미타경요해>를 미국의 저명한 불교학자 클리어리(j.c. cleary)가 영역해 출간한 것을 서술 대 명예교수 이기화 박사가 우리말로 옮긴 것. 따라서 <아미타경>과 정토신앙을 이해하는 매우 정확하고 쉬운 길잡이다. 임연태 기자



천천히 살아야 하는지 아세요?

쓰리 신이치 지음 | 이문수 옮김  
나문처럼 펴냄 | 8,500원

“사랑이란 아무런 쓸모도 없고 이익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낌없이 상대를 위해 시간을 쓰는 것이다. 즉, 사랑은 슬로(Slow), 천

왜 천천히 살아야 하는지 아세요?

천히 하는 것이어서 시간이 걸린다. 때문에 때로는 귀찮기 짝이 없다. 하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사랑인 것이다.” <슬로 라이프>의 저자인 일본 작가 신이치가 왜 천천히 살아야 하는지, 그렇게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삶을 일러주는 예제이 <천천히가 좋아요>를 펴냈다. 저자는 바쁘게 사는 현대인들에게 시간이라는 통념을 천천히

뒤집어 생각할 것을 요구한다. 바쁘게 살면 오히려 시간이 절약돼 시간이 많이 남아돌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고 저자는 안타까워한다. 또한 현대인들은 온갖 문명의 편리한 테크놀로지가 주는 ‘편리함’에 흠뻑 빠져 마치 ‘편리함이 곧 편안함’인 줄 알고 살아간다. 그러나 아무런 반성 없이 이

대로 살아간다면 언젠가 ‘즐거움’보다는 ‘불편함’과 ‘재앙’을 맛볼 것이란 경고성 메시지도 이 책에는 들어 있다. 그렇게 길들여진 생활 패턴을 바꾸기는 쉽지 않지만 반드시 “slowdown(천천히)” 행동해야 한다는 게 저자의 일관된 주장이다. 책장이 술술 넘어가는 가벼운 책이지만 전하는 메시지가 결코 가볍지 않은 이유는 너무나 절박한 현실의 사건들을 대변해 주기 때문이다. 김주일 기자

수행하며 인체 신비 깨닫는 과정 답야



백두산 성지를 찾아서

김봉규 · 김금화 지음  
동일보사 펴냄 | 1만3000원

고통을 동요 없이 지켜볼 줄 알아야 한다. 그 깨달음의 체험을 피력한다. 그렇다면 고통과 번뇌를 동요 없이 지켜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얼핏 들어도 결코 녹록지 않은 것일 텐데 말이다. 저자는 그 방법이 바로 명상이라고 말한다. 명상을 통해 자연과 사람이 가까워질수록 이질감과 저항감이 줄어들고 동요 없이 바라볼 수 있다고 소개한다. 김주일 기자

저자는 잘나가던 증권회사 생활을 접고 명상과 의학의 세계로 여행을 떠났다. 그리고 17년간 국내외 곳곳을 주유하며 불가(佛家) 수행법과 선도(仙道), 요가 등을 익혔다. 이 책은 저자 김봉규씨가 백두산에서 7년동안 명상 수행하면서 음양 오행의 이치와 인체의 신비를 깨닫는 과정을 담고 있다. 저자는 책에서 “마음과 몸의 고통을 동요 없이 지켜보려는 자세가 중요하다. 고통은 바람과 같다. 사람이 막아서거나 저항하지 않으면 흔적 없이 왔다가 떠나는 것이 바람이다. 그러나 고통을 동요 없이 지켜볼 줄 알아야 한다. 그 깨달음의 체험을 피력한다. 그렇다면 고통과 번뇌를 동요 없이 지켜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얼핏 들어도 결코 녹록지 않은 것일 텐데 말이다. 저자는 그 방법이 바로 명상이라고 말한다. 명상을 통해 자연과 사람이 가까워질수록 이질감과 저항감이 줄어들고 동요 없이 바라볼 수 있다고 소개한다. 김주일 기자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언젠가 이 세상에 없을 당신을 사랑합니다	월호	마음의 숲
2	사할 100미 100선	하균	불교신문사
3	오대산 노스님의 인과 이야기	과경	불광출판부
4	염불선	덕산	클리어리앤드
5	하루 10분 내음을 살리는 10분의 기적	김재성	아름다이어
6	행복한 미소	상진	계미
7	답답하면 물러라	법륜	정토
8	살아 있는 것은 다 행복하라	법정	조화로운 삶
9	별처럼 사는 법	이시우	우리출판사
10	나미스떼, 여기는 북타의 나라	항명	운주사

모든 불교서적이 모이는 곳  
불교서적총판 운주사  
전화 02)3672-7181 팩스 02)3672-7188

살림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총동림동문회)  
제7,8대 회장 이·취임식 및 정기총회  
일시 : 불기 2552(2008)년 1월 10일(목) 오후 5시  
장소 : 동국대학교 상록원  
(제8대 임원선출)  
◆ 회장 : 동인 중후 스님(노직사)  
◆ 수석부회장 : 송묵 스님(동원정사) 법운 스님(청용사)  
◆ 감사 : 장적 스님(안통사), 현중 스님(보정암)  
◆ 사무총장 : 벽담 학명 스님(성불사)  
◆ 기획실장 : 연담 법경 스님(건국대병원 불교법당 능인정사)  
◆ 총무부장 : 행문 스님(보광사)  
◆ 재무부장 : 지원 스님(보국사)  
사무실 02)735-1053 · 사무총장 011-210-5915 · 총무부장 011-9477-5424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출가공동체 총동림 동문회

우수제품 제작    상표등록 614981호, 디자인등록 0407120호, 발명특허 0554383호  
고무신코 만행화  
방한용탈신    발·마춤형 제작    방한용부츠  
조각무명    특 무 명    지압칼창    사계절단화  
최고의 선물  
문의 및 주문전화 : 02)733-5715, 011-9000-5715  
입금계좌 : 농협 063-12-250427(구자민)  
\*보시 하실 분상환 명행  
전국매장  
부산 : 원광사 051636-7019    대구 : 연꽃세상 0530426-7300    광주 : 불교서원 062)226-3056 / 화신승복 062)228-2870  
서울 : 부산승복 02)738-8407    대전 : 불교백화점 042)274-3727 / 대구승복 042)254-8772    제주 : 김윤경승복 064)724-7999  
충북(충주) 원심사 불교점 043)846-9091    전주 상운각 063)274-6639    경북(예천) 불타불교점 054)655-2525